

## 법조인 이야기

인터뷰를 마친 시점의 소회로부터 글을 시작하면, 박한희 변호사(38·변호사시험 6회)를 만나고 난 후 내게 강렬하게 다가온 실존적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조건이란 과연 무엇인가’였다.



강릉고와 포항공대를 졸업한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에 합류했다. 국내 최초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지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자연인의 개성 모두 존중받고 싶어

박한희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아마도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존중받으면서 개별적 개성(personality)을 인정받는 것.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체성을 존중받는 것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개성을 인정받는 것에는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

받는 데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트랜스젠더임을 사회적 층위에서 오픈한 박한희 변호사도 그 과정을 겪은, 아니 여전히 겪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감히 그의 그 꾀진한 노고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그를 만났다.

세련된 도회풍의 이미지를 가진 그는 삼척 출신이라고 했다. 푸른 바다와 석회암과 석탄 지대로 유명한 강원도의 한적한 소읍.

“삼척이 고향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강릉으로 이사를 했어요. 오빠가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제 고향 삼척을 좋아해요. 작고 조용한 곳이기도 하고 공기도 좋고 바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시골이다 보니 성소수자 정체성 측면에서 저의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외롭고 답답한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큰 도시를 동경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는 (한때) 고향에 대한 애증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인간의 본질적 모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보면 모순은 인간의 공통된 숙명 아닐까. 모든 성질과 지향이 일치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2014년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에게 제 정체성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어느 정도 짐작

을 하고 계셨던지 눈물을 보이긴 했지만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가 공익근무를 삼척시청에서 했는데 (그 무렵 삼척에 다시 귀향하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 저에게 정체체성 문제가 있다는 걸 어렵풋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제 상황을 좀 더 분명히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 일부러 작은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저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대략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까지 그는 공교롭게 남자들로 둘러싸인 학교(남고, 공대)와 남성성이 대세인 직장(대기업 건설회사)을 다녔다. 짐작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시절 그가 피부로 느꼈을 고통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었다.

“존중받거나 이해받을 거라는 가능성이 자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의 환경에서 제 또래 성소수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약의적인 혐오 발언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들이 언뜻언뜻 내뱉은 말들 속에 편견이나 무지 같은 게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상처로 다가왔죠. 동료나 친구로서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관계도 나쁘진 않았는데, 저 스스로 선을 긋고 제 바운더리 안에 그들을 초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주말에 보통 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같은 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말에 동료들이 밖에 나

와서 술 먹자고 불러내는데 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죠.”

여기서 그의 고통이 명징해진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독, 심대한 중증의 고독이라고. 같은 목적하에 이뤄진 커뮤니티에서 자신만 온전히 속할 수 없다는 삼엄한 자각, 그것은 자신을 이질적 존재로 타자화해야만 하는 고독이었을 것이다. 이런 고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고독은 과장하면서도 타인의 고독엔 무관심하고 냉담하다.

많은 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박한희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들을 대면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고 재학중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바로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에 합류해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커밍아웃을 생각할 즈음에 결국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가 될 텐데, 과연 취업할 수 있는 로펌이나 직장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때 우연히 ‘희망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 성소수자로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때부터 그분들과 닿아서 소통하게 됐고 졸업할 즈음에는 그분들과 상당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자연스럽게 그곳에 합류하게 됐어요.”

여기서 내게 중대한 의문이 생겼다.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들어가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투적인 일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측가능한 (재미없는) 시나리오라는 것. 차라리 평범한 로펌에 들어가 다른 변호사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일반 사건 등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게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행복의 조건 중 하나인 자신의 퍼스널리티까지 인정받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박 변호사에겐 언제라도 일반 로펌에서 일할 생각은 없는 걸까.

“어느 정도 연차가 되어 개업을 하면 일반 변호사 업무에도 뛰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2020년 숙명여대 성소수자 입학 이슈를 겪으면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롤모델로 언급하면서 수많은 매체와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걸 겪으면서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내가 트랜스젠더를 내려놓고 변호사를 일반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성소수자 프레임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피하는 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여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속연하면서도 결연한 책임감이다. 그러면서도 박 변호사는 자신의 모습이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에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성정체성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되고 이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오픈리 트랜스젠더 변호사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것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늘 따라와요. 강연 요청 같은 것도 들어오는데, 법률가로서의 소신 같은 걸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 변호사로서의 정체성 같은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저도 좀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꾸밈없이 솔직한 그의 성정과 사회적 지향이 드러난다. 그것은 트랜스젠더 변호사로서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3만 명이 넘는 변호사 중 1인으로서 갖는 분명하고 고유한 기질일 것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만 하는.

그가 현재 법률가로서 관심을 갖는 이슈는 성소수자들이 성별 정정 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현재의 대법원 기준이다. 그에게 그 이슈의 논점을 물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권 보호와 존엄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사자가 내면에서 인식하는 성 정체성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별이 다를 경우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줘요. 일단 취업이 안 돼요. 생존,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자신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외과적인 수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이 있고 비용 문제도 만만찮은 것이고요. 아울러 우리 사회엔 법적 성별이라는 게 뭔가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남자 여자 분리 채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성차별로 인정되어 불법이잖아요. 법률이 성별을 계속 구분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가,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를 두는 게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 변호사 자신이 먼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성소수자로서 성별정정 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없을까. 그는 여기에 냉철한 답변을 내놓았다.

“제가 직접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대법원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 것이 성숙해진 타이밍을 보면서 섬세하게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박한희 변호사는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자신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자신과 동료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나가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사회의 진보는 뛰어난 한 사람의 신념과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도 했다. 그 보다는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의 바탕에 고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신념만이 아닌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고민을 투여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에게 신뢰와 호감이 갔다. 그는 자신이 속한 ‘희망법’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희망법은 법률단체가 아니라 인권단체, 시민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모든 사건을 무료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이 충분치 않아 매달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재정은 계속 적자인데 적립되어 있는, 이월된 후원금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뜻있는 시민들의 후원금이 모아진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산과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푼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인터뷰가 있던 날(2월 22일)에는 동성커플이 국민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했던 행정소송 심판이 있던 날이었는데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 든 날이다. 박한희 변호사가 당사자들을 지원해왔기에 참으로 기쁜 날이었던 셈. 그는 저녁에 함께 고생했던 분들과 승소를 축하하는 술자리가 있다고 했다. 그 술이 얼마나 달고 시원했을지 능히 짐작이 갔다.

대화를 모두 마쳤을 때 그는 내게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매력적인 개성을 가진 개체로 다가왔다. 그는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연인으로서의 개성 사이에서 목하 분투 중인, 자신의 행복한 삶을 타진하는 여타의 평범한 청년과 다를 게 없었다.

(출처/법률신문)